

## 광주 공기업 구조조정 '숫자놀음'

### 말 뿐인 정원 5% 조정... 실제 인원감축은 없어 신규채용 막아 청년 일자리 100여개 사라진 셈

민선 5기 들어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한 광주시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들이 인원 감축 대신 직원 수보다 부풀려 책정된 정원만을 줄여 '숫자놀음'에 그치고 있다. 실제 근무인력은 그대로 두고 신규 채용을 없애 구조조정 효과가 반감되는 것은 물론 지역 청년 일자리만 사라지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역 청년 실업률이 전국 최고 수준이고, 지역 대학생들이 일자리를 찾아 역외로 떠나가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같은 구조조정은 근시안적인 정책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광주시는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온 산하기관에 대해 정원 5% 조정과 경감예산 10% 절감, 상위직 비율 적정 유지 등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 계획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산하기관 전체 정원 1723명에서 90명이 감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정원 5% 조정은 '말' 뿐이었다. 구조조정을 현재 근무인원이 아닌 정원을 기준으로 해 이들 산하기관들이 현원보다 부풀려진 정원의 수만 줄였기 때문이다. 또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퇴직자 등 자연 감소분에 대해 신규 채용을 안 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마무리했다. 광주도시공사의 경우 사각 2분부 1실 4단 17팀(소)의 22개 조직을 사장 2분부 1실 3제 1단 16팀(소)의 21개

팀으로 축소하면서 인원을 11명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254명이 근무하고 있는 도시공사의 정원은 265명으로, 현 근무인원을 정원으로 확인을 확정했다. 1부 3소 14팀의 직제에서 1팀을 축소하고 6명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광주시환경시설공단은 정원을 205명에서 199명으로 조정했을 뿐이다. 기존 2분부 2실 2단 1사업소 24개 팀 체제를 2분부 2제 1실 2센터 22개 팀 체제로 개편하며, 정원 11명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도시철도공사 역시 정원을 기존 577명에서 현 근무인원인 566명으로 숫자를 줄이는 선에서 구조조정을 마쳤다.

환경시설공단 관계자는 "올해 신규로 채용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하고 정원을 조정했다"며 "구조조정을 하면 당연히 신규 채용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출자·출연기관도 자연 감소분에 대해 신규 채용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전체 인원의 10%를 감원했다. 문제는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평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질 경우 신규 채용을 포기하는 이 같은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 같은 구조조정방식은 기관 내 중복·불필요한 부분을 없애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라 기존 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인재의 진입을 막는 악순환의 사발집이 될 것"이라며 "지역 대학생들이 선호하는 랜섬은 일자리 100여개가 사라지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내 이름은 '코리아노사우루스' 1일 전남대 한국공룡센터에서 공개된 한국 이름을 띤 최초의 공룡 '코리아노사우루스'를 관람객들이 카메라에 담으며 흥미로운 눈길로 관찰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나명주기자 mjna@

## 광주시의회, 편법 유급보좌관제 철회

### 예산 반영 대신 입법 추진키로

광주시의회가 최근 논란이 된 편법 보좌관 채용을 위한 예산 반영 요구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했다(본보 10월 29일자 1면). 대신 전국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장단과 연대해 유급 보좌관제 도입을 위한 입법활동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준문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1일 "윤봉근 광주시의회 의장 등 시의회 의장단이 이날 만나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광주시에 편법을 강요할 수는 없어 더 이상 예산 반영을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시의회는 시의원 보좌관들을 편법으로 채용하기 위해 의회 서포터즈 시범 운영 명목으로 광주시에 6억43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광주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해 시의원 보좌관 28명을 연구자로 채용, 1인당 연간 1500만원의 급여와 4대 보험의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그 골자다. 그러나 광주시는 서울시가 지난 2007년부터 이 같은 방식을 운영해오면서 편법논란이 일어 최근 감사원에 서도 지적됐고, 행정안전부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불가 방침을 정해 예산 반영을 미루었다. 대신 시의회는 전체 의원 26명 중

20명이 사비를 들여 보좌관을 두고 있고 시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을 위해서는 유급 보좌관제 도입이 필요한 만큼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 광주시공무원노조에서 보좌관들의 지나친 자료 요구 및 고압적인 자세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이 위원장은 "상호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러나 의원들이 감사를 하다 보면 많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공무원 근무시간을 초과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위축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기아차 광주공장 10월 생산 신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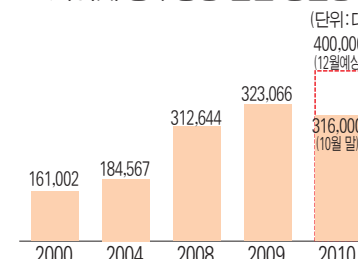
### 10월 4만2250대 사상 최대...50만대 재편사업 성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지난달 월 생산량 4만대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 기록을 세웠다. <관련기사 8면> 1일 기아차 광주공장(공장장 송천권)에 따르면 광주공장의 10월 생산량은 총 4만2250대로, 지난 2006년

11월 이후 48개월만에 4만대를 넘어 서며 월간 생산량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종전 최고 기록은 2006년 11월 4만3000대였다. 이는 지난 9월 노사가 전격 합의한 쏘울 증산협약의 완료에 따라 9월 말부

터 분배도에 오른 연간 50만대 생산 체제 개편사업으로 생산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또 쏘울이 북미를 비롯한 해외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고, 스포티지R도 올 3월 출시 이후 국내 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는 등 광주공장 주력 차종의 판매 호조도 한몫했다. 광주공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쏘울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1공장의 경우 지난 9월부터 생산규모를 당초 시간당 37대에서 42대로, 스포티지R을 주력으로 하는 2공장은 지난 6월부터 스포티지R과 쏘울을 함께 생산하는 체제로 전환해 시간당 35대에서 42대로 늘려 가동하고 있다. 기아차의 질주는 주시시장에서 이어졌다. 10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이끈 기아차는 이날도 전날보다 4600원(10.24%) 오른 4만9500원으로 장을 마쳐 시가총액 19조5404억원을 기록, 한국전력(19조225억원)을 제치고 톱 10위에 진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기아차 광주공장 연간 생산량



**당신만을 위한 비즈니스 호텔**  
\*런치 스페셜 - 해물지리탕, 추어탕, 육개장  
\*특선해물부페 - 35,000  
\*객실: 전 객실 50% 할인  
\*웨딩홀: 웨딩패키지 할인 숙박권 증정  
\*플랜저: 숙박권증정 및 패키지 할인  
\*철수연·각종 세미나 (대·중·소 선화장 연비)  
**이딩크관광호텔**  
예약문의 ☎(062) 227-8500  
www.hiddinkhotel.com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우악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원년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알림**  
**제6회 광주일보 문학상 공모**  
5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제정한 '광주일보 문학상'이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이합니다. 응모작품은 미발표 신작 또는 최근 1년 내 개간지 등에 발표한 작품이면 됩니다. 광주일보 신춘문학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응모 대상=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작가  
●공모 분야=시, 소설, 동화, 희곡 등 문학장르  
●대상 작품=미발표 신작 원고 및 최근 1년 (2009년 10월 1일~2010년 9월 30일)내 발표 작품  
●상금=300만원  
●원고 마감=2010년 11월 12일  
●제출할 곳=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사 편집국 문화생활부 '광주일보 문학상' 담당자 앞 또는 메일 bigkim@kwangju.co.kr  
光州日報社

**촉촉함이 깊어져요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앰플**  
언제부터가 매일 바르던 보습제품이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리리코스 마린 하이드로 앰플과 만나보세요. 지구상의 그 어떤 물보다 생명력 넘치는 깊은 바다의 마린 에너지가 피부를 촉촉하고 부드럽게 감싸 피부 깊숙이 깊은 보습과 영양을 전해 드립니다. 이제 한 방울, 한 방울 바를수록 깊어지는 촉촉함을 느껴보세요.  
\*마린 플라센타\* 콤플렉스를 함유하여 피부에 닿는 순간, 미세입자 풍부한 해양신물수와 심해의 보습 성분들이 빠르게 흡수되어 수분막을 형성합니다.  
\*피부 구성성분과 유사한 탄수화물 복합체, 자당성분 등이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을 높입니다.  
리리코스는 카운셀링 전문 제품으로, 뷰티이력을 통해 알릴 수 있습니다. ◊ 구입처 문의: [동주권] 동주점 062-225-5056 / 서구점 062-222-5005 / 상무지사 062-228-8048 / 중양지사 062-573-8802 / 광주송정지사 062-241-6685 [전남권] 목포지사 061-205-2007 / 순천지사 062-222-0155 / 여수지사 061-832-0614 [전북권] 군산지사 063-468-3173 / 전주지사 063-286-0636 / 호남제일지사 063-231-2010